

“국산약재서 중금속이라니 ..” “시험과정 객관성 없다” 농민 반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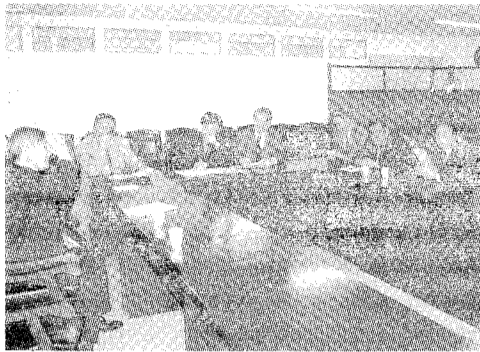
최근 KBS 9시 뉴스에 ‘국산으로 표기된 한약재에서 중금속과 잔류농약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보도된 이후 국내 생약재배 농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 한약업체가 발칵 뒤집혔다. 가뜰이나 불경기로 찬바람이 도는 한약업체에 이번 보도 여파는 심각한 타격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산으로 표기돼 유통되는 인삼과 더덕 등 한약재에서 맹독성 농약성분과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것. 그러나 “그렇게 많은 중금속과 농약이 검출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게 한약업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립환경연구원 산하 시험기관인 경동농수산물검사소 김명희 소장은 “지난 98년 우리 시

험소가 이곳 경동한약상가 내에 문을 연 이후 지난 3년동안 매년 3,4천건 이상 한약재 유해성분 검사를 실시해 왔고 다소간의 기준치 이상 잔류물이 검출된 경우는 있지만 이번 한약재연구원의 시험결과처럼 치명적인 잔류농약이나 중금속 성분이 다량 검출된 적은 없었다”면서 “검출 수치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간다”는 입장. 시험법과 시험장비 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김천에서 약초재배를 하는 허영씨(63세)는 “사삼 반하 등의 약재는 농약을 살포하게 될 경우 그해 농사는 망치는 것”이라며 다른 품목은 몰라도 이



◆ 황인구 회장을 비롯 협회 임원진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을 향의 방문했다.

들 품목은 그래서 무농약으로 재배되는 것들인데 이들 품목에서 맹독성농약 그것도 60~70년대 이후 사용금지된 DDT 같은 맹독성 농약이 검출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검출됐다면 그건 분명 수입산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약초생산량 기하급수적 감소추세 수급조절품목서 제외되면서 부터

수급조절품목으로 묶여 있다가 수입개방된 품목들의 국내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 통계자료인 ‘특용작물생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 10월 수입개방된 길경, 지모, 패모를 비롯하여 지난해 7월1일부터 개방된 목단피, 방풍, 치자, 향부자 등 약재 2001년도 생산량은 수입개방전인 96년 생산량에 비해 평균 절반 이상 감소했다.

지난 96년 137톤이 생산되던 목단피 지난해 생산량은 40톤으로 약 70% 포인트 감소했으며, 73톤 가량 생산되던 지모는 지난해 16톤으로, 무려 748톤에 이르던 치자 생산량은 지난해 겨우 58톤 수준으로 90% 포인트 이상 급감했다. 이밖에 1,152톤(’96)에 이르던 향부자는 451톤(’01)으로, 방풍도 338톤(’96)에서 187톤(’01)으로 뚜렷한 감소경향을 띄고 있으며 비교적 감소폭이 적은 길경 생산량도 5,396톤(’96)에서 4,850(’01)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약재의 반입량 증가로 가격경쟁에서 밀린 국산 한약재가 판로를 찾지 못한 가운데 생산농민들의 약용작물 재배기피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진 때문. 국내 생약농업 육성에 대한 자구책 없이 세계적 조류에 밀려 수입 개방할 경우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 생약생산기반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특히 패모의 경우 지난 95년 만해도 35톤 가량 생산돼 왔으나 지난 97년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되면서 국내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 지금은 종자조차 구하기 어려운 만큼 생산기반이 붕괴된 실정이다. 이같은 국내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1~2년 사이 중국산 패모시세도 폭등, 몇 년전까지만 해도 미화로 kg당 2.5\$(한화 약3천2백원선) 수준이던 중국산 패모가 지난 연말에는 12\$(한화 약 1만5천원선)까지 폭등했다. 수

급조절품목으로 묶여있을 당시 국산 패모시세는 근당(600g 기준) 5천~6천원 선이었다.

자생식물로 성장촉진 물질개발

우리나라 자생식물로 부터 성장촉진 물질을 개발, 어린이 성장발육과 체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한약리학교실 김호철 교수는 과학기술부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발족된 자생식물 이용기술개발사업단으로 부터 연구비를 받아 골 같이 성장을 촉진시키는 한약재를 발견해 냈다고 최근 밝혔다.

김 교수팀은 나아가 가시오가피 라는 이 한약재의 효능과 작용 메카니즘을 밝혀냈으며 최근 상용화하는데도 성공했다.

농농업직불제 지원작목 확대 작약, 목단등 약용작물도 재배 가능

농림부는 그동안 농농업직접지불 지원대상 작목을 벼·미나리·연근·인초 등 논농사에 국한했으나 올해는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가 어려운 과수 및 관상수, 영년생 목본류 약용작물을 제외한 모든 작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따라 농업인들은 시설원예·인삼·엽연초등의 재배작목을 자율적으로 선정, 논에 재배할수 있게 되었다.

한편 재배가능작목과 제외작물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재배가능작목(예시)
식량작물(콩·옥수수 등), 약용작물(인삼·작약 등 초본 약용작물과 목단 등 일부 저생육 관목류), 기호작물(연초·차나무 등), 사료작물, 기타 잔디·뽕나무·버섯 재배 등.

△제외작물 예시
과수(사과·배·포도 등), 관상수(향나무·은행나무·단풍나무·소나무 등), 영년생 교목류 약용작물(계피·오미자·구기자·두충·산수유·두릅나무 등).

(문의 전화:02-500-1807)

이 모 저 모

한국한의학 연구원 공식방문

○...최근 KBS 9시 뉴스보도 사태와 관련 생약협회는 황인구 회장을 비롯 남정학 전무, 엄경섭 이사, 황용수 이사 등 임원진이 함께 지난 4월3일 한국한의학연구원을 공식방문, 시험결과 내용의 객관성 및 검체 선정 등 시험과정상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연구과제 발탁 수행했음 뿐”

○...고병섭 박사는 “우리가 그같은 연구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보도자료를 낸 적도 없고 방송사의 취재에 응하거나 인터뷰를 한 사실도 없다. 우리는 다만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연구과제를 받아 그대로 시행했을 뿐이며 올 3월초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간의 총체적인 한약관련 연구내용에 대해 브리핑 해줄 것을 요구해와 브리핑한 것 뿐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시험결과 자료도 공식적인 자료제출도 아니고 대외비로 비공식 제출된 것이어서 이번 사태는 우리로서도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검체 채취업소 공개 촉구

○...생약협회 남정학 전무는 “10개소 11개 품목에서 중금속 및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했는데 검체가 국산이라는 근거 있냐”며 검체 자체가 수입산일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

그같은 근거로 남정학 전무는 “국내 생산량이 거의 없는 천남성을 시중에서 구입해 검체로 사용했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한번도 유해농약이 검출된 적이 없는 국산 사삼에서 DDT 등 맹독성 농약이 검출됐다는 건 납득이 안가는 사안”이라며 명확한 사실규명을 위해 검체 채취 업소를 공개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국산진위 여부 감별절차 거쳤나?

○... “수입국산의 혼용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 수입국산을 판별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고병섭 박사는 “감별위원회는 필요성을 느껴 최근 구성됐고 검사 당시는 국산 진위여부를 감별할 만한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며 시장에서 국산으로 표기됐기 때문에 국산으로 알고 구입했고 시험도 했다”며 검체의 국산 진위 여부에 대한 확신은 없음을 인정했다.

포장규격화 제도의 문제점 지적의도

○...이번 시험연구 배경에 대해서는 “국산 한약재도 브랜드화가 필요하고 품질인증을 위한 기준설정을 위해 이번 연구가 시작된 것”이라며 “생산농민이나 한약업체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것은 더욱 아니고 현 포장 규격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자료”라고 항변

연구과정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했어야

○...연구원에서 직접 자료를 배포한 것은 아니라고 하나 국가연구기관에서 대외비 자료가 공영방송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관리가 허술한 점도 그렇고 “국비로 운영되는 책임있는 국가 연구기관이라면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연구결과에 대한 파장까지도 당연히 고려해, 연구과정상의 모든 공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했다”는 게 한약업계 관련자들의 공통된 인식. 연구원은 어쨌건, 이번 연구결과와 파장이나 연구과정상의 객관성 결여 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듯.

(문정희)